

민주 대선 경선 일정 20일까지 확정...연기 쉽지 않을 듯

대선 주자 진영간 날 선 공방

이재명측 "연기는 자멸의 길"

영호남 교수 등 연기 공개 반대

대선 경선 연기 여부를 놓고 민주당 내부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흐름은 '현행 경선 일정 유지'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선 연기론'은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 면역이 이뤄지면 경선을 치러 국민적 흥행을 일으켜야 한다는 명분을 갖고 있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일정 변경은 민심 이반을 가속화시키는 것은 물론 내부 갈등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 효과에 비해 비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주 내에 당초 경선 일정을 사실상 확정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6일 민주당에서는 경선 일정 연기 여부를 놓고 각 대선 주자 진영에서는 날카로운 공방을 벌였다.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가 "가짜 약장수가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끝났다"며 경선연기론에 직격탄을 날린데 이어 이날 이 지사 지지 성향으로 분류되는 안민석 의원은 경선 연기 논란에 대해 '착각한 골방이슈'라며 "결국 늘어나는 것은 분열이고 떨어지는 것은 당 지지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영호남 교수·지식인 160명은 이날 국회 앞에서 "당헌의 정치 일정 준수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현행 일정 유지를 촉구했고 민주당 대구 지역 지방의원 24명도 성명을 내고 경선 연기에 공개 반대했다.

이에 이낙연 전 대표 측근인 오영훈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 지사가 '약장수'라고 비판한데 대해 "과도한 표현"이라며 "당내 이런 (연기) 주장을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도 제대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 측 정운현 공보단장도 페이스북에서 노자 '도덕경'의 '다언삭궁 불여수중' (多言數窮 不知其中 言이 많으면 곤란한 일이 자주 생김으로 마음 속에 담아 두는 것

보다 못하다)을 인용하며 "정치인은 말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처럼 경선 연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현실적으로 일정 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체 90%정도 의원들이 경선 연기에 찬성하고 민심도 이를 지지한다면 적극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당내 대선 주자들 간의 합의도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며 경선 일정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도부의 의사도 경선 일정 변경이 어렵다는 흐름"이라며 "이번 주 내에 당초 경선 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초선모임 '더민중' 운영위원장인 고영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찬반 양론을 소개하며 "최근에 이재명 지사 외에 추미애 전 장관, 박용진 의원도 반대 입장을 보여 (경선 일정 연기) 쉽지 않을 거란 의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선경선 일정을 오는 20일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다 들었고 늦지 않게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결정을 내리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주말까지도 갈 수 있는데 가급적 이 논란은 조기에 매듭짓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경선 일정은 대선기획단이 아닌 최고위 의결사항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헌당규상 '대선 180일 전 선출' 규정은 당무위의 결로 달리할 수 있는데 당무위 의결 안건을 정하는 것은 최고위 결정사항"이라며 "경선 일정이 확정돼 대선기획단도 그에 맞춰 활동한다"고 설명했다. 대선기획단 구성 문제는 추후 정식 최고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경선 일정이 확정되더라도 경선 틀이나 흥행 방식을 놓고 주자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도 제기된다. 일단 관심은 예비경선이다. 출마자가 7명 이상이면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여론조사 50%를 통해 본경선 후보를



황금 열쇠 선물 받는 문 대통령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시청을 방문해 호세 루이스 마르티네즈-알메이다 시장으로부터 황금 열쇠를 선물받고 있다. /연합뉴스

6명으로 압축해야 한다. 다만 예비경선 시점과 구체적인 실시 방법, 여론조사 질문 등은 당 선관위에 결정된다.

후위 주자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방식 등 경선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 경선일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73년만에...여순사건 진상규명 길 열렸다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내달 초 본회의 처리 될 듯

무려 73년 만에 여순사건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규명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법사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열릴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법사위나 본회의 통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4차례나 발의됐지만, 상임위에 계류돼 번번이 자동 폐기됐던 여순사건 특별법은 늦어도 다음 달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73년 만에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주철현, 김희재, 서동용, 김승남 등 전남 동부권 의원들도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지도부를 압박, 당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약속을 이끌어냈다. 여기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호남 끝어안기 기조 속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법안 통과가 완만하게 이뤄졌다.

여순사건은 지난 1948년 10월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의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으로,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하고 피해를 입었다.

특별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두고 진상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국가는 희생자 또는 유족 등의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73년이라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흐른 뒤에야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순천·여수 영령들과 유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감격스럽다"며 "16대 국회부터 논의되어왔던 여순사건특별법이 사상 최초로 국회 행안위 문턱을 넘었으니 더 박차를 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낙연·정세균 이어 친문도 개헌론 제기...속내는?

비공개 토론회서 필요성 공감대

4년 연임·대,총선 동시 실시 등

이재명 현시점 부정적 견해 피력

더불어민주당 주류인 친문계 의원들이 16일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문계 당내 모임인 민주주의4.0연구원(대표 도종환)은 이날 오전 여의도 컨벤션호텔에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최인호 의원은 4년 연임 대통령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선과 총선 동시 실시

를 제시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22년 하반기에 개헌안을 발의, 2023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같은 해 하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계획이다.

최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5년 단임제와 여소야대의 (가능성이 높은) 중권평가 총선이 겹치는 것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잘못하면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 권력분산을 전제로 4년 연임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낙연 전 대표 대선 캠프에 몸담은 최 의원은 "이 전 대표는 부통령제를 하자는 생각이었고, 나는 총리제도를 존속시키자는 것이다. 결이 다르다"며 "이 전 대표를 대변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개헌 주장이 여권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과 관련해서는 "전혀 그런 것 없다. 특정 후보 견제가 아닌 순수한 의도이고, 총정 어린 제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당내 모든 대선 출마자들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개헌론을 들고나온 상태.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4년 중임제, 분권, 인권 강화, 환경 문제,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포함해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의 방역·민생에 우선순위를 뒤탈"이라며 현시점에서의 개헌 논의에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8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바른자세, 꾸준한 운동, 세심한 관리로 튼튼한 '인생' 튼튼하게 '즐기세요'

척추 무릎 어깨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